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 신성중 편집인 : 우기전 편집국장 : 이종국

* 오늘은 선교주일 *

1995년, 내실있고 넘치는 선교 중흥의 해

선교위원회 총회, 오늘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선교헌금 작성 및 선교 주제 설교, 공과 공부 등으로 선교적 관심

오늘은 우리 교단과 전국 교회가 선교주일로 지키는 주일이다. 이에따라 우리 교회도 오늘을 선교주일로 정하고 이날을 지킴으로 온 교회가 선교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고 선교적 현실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선교위원회는 선교주일을 맞으며 선교위원회 총회 및 실행위원을 임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저녁 찬양예배를 선교헌신예배로 드리며 선교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게 되고 주일 각 부 예배시간에는 선교헌금을 작성한다. 선교위원회는 1995년도를 '1995년, 내실있고 넘치는 선교 중흥의 해'라고 표어를 내걸고 세계선교를 위한 전 교회적 열기를 확산하고 선교사 파송의 배가운동을 전개하며 선교현지와와의 유대 및 지원 강화, 북한 및 회교권 선교의 중흥을 위한 기반조성 등의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며 애쓰고 있다.

선교주일을 맞으며 선교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갈릴리홀에서 선교위원회 총회를 갖는다. 제1부 경건회와 제2부 실행위원 임명식, 회의 및 선교보고, 기타 안건토의, 제3부 권별모임 등의 순서로 총회가 진행된다. 선교위원회는 남아시아국, 북아시아국, 미주국, 유럽국, 아프리카국, 북한국, 교학국으로 나뉘어져 각국마다 국장 및 간사, 서기 총무를 두고 운영하며 각 국권은 매주 수요일에 교대로 기도회를 갖고 있다.

한편 선교에 대해 더욱 확실히 알고 헌신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선교연구원에서는 1년 과정으로 선교에 관한 공부를 시키고 있다. 해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전문인 선교사(tentmakers)로 사역하기 원하거나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대학부 이상의 충현교회 세례교인을 대상으로 매주 주일 오후 3시부터 베다니홀에서 모이고 있다. 이 선교연구원의 강의는 국내외의 선교학에 대한 교수 및 선교사들이 초빙되어 강의한다.

선교연구원을 1년 이상 수료한 성도는 본인의 청원서 심의 후 본 교회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받고 각종 선교자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놓고 있다.

또한 주일 각 부 예배에는 선교헌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선교사를 보낸

후에 필요한 것이 기도와 물질이다. 지난해에도 정성껏 드린 선교헌금은 선교사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 주었다. 이번에도 모든 성도들이 선교헌금 작성에 참여하여 더욱더 많은 선교사 파송 및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선교위원회에서는 ① 충현교회가 향후 2000년대까지 매년 2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② 95년도의 충현선교 사역을 위해 2명의 선교사 파송, 선교기도회의 확산, 전 교회적인 선교열기가 더 뜨거워지도록, ③ 북한선교를 위해 · 의

료품 나누기 운동, 북한선교 세미나, 북한선교 모임의 활성화, ④ 북방선교를 위해 ·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이 속히 착공되어 건립을 보도록, 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등을 '충현선교를 위한 기도제목'으로 나누며 기도하고 있다.

선교는 모든 성도가 기도로 동참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한 사람도 방관자가 되거나 구경꾼이 되지 말고 모두가 기도와 선교헌금으로 동참하여 함께 참여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모두 다 되어야 할 것이다.

회계 실무자 교육

오늘 오후 3시 30분, 교육관 301호에서

재정위원회에서는 새해를 맞으며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회계실무교육을 오늘 오후 3시 30분, 교육관 301호에서 실시한다.

특히 금년부터 회계관련업무 일부가 변경되기에 각 부서 회계실무 담당자는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참석대상자는 각 위원회 회계, 교회학교 각 부 회계, 각 찬양대 회계, 교육훈련원 회계이다.



금주의 교회행사

· 95년도 청지기 훈련 시작 1월 25일 (수), 오후 7시, 전직분자

95년도 청지기 훈련이 오는 1월 25일 (수)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 금주 수요일에는 전 직분자 및 대학 · 청년부회원이 참석해야 한다. 첫째 시간은 수요일예배를 드리고, 둘째 시간(오후 8시 15분 - 9시 30분)에는 당회장 신성중 목사의 강의가 있다.

· 학원전도회 겨울수련회

1월 26일 (목), 오전 10시 - 오후 4시, 갈릴리홀

학원전도회(회장 엄복섭 집사)에서는 오는 1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갈릴리홀에서 겨울수련회를 갖는다. 초 · 중 · 고 · 대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학원전도회는 매년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수련회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교회 부근에 있는 학교 신우회 소속 교사들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건축지원 협정서 서명식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건립을 위한 건축지원협정서 서명식이 지난 14일(토) 오후 6시, 우리 교회당 선교관 만나홀에서 열렸다. 중국 길림성을 대표해서 소세광 목사와 일행 5명이 참석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원과 교역자, 신학원 후원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제 준비가 되는대로 신학교 건물을 짓고, 신학원을 개교하여 신학교육을 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모두가 열심으로 기도하여 신학교가 건립되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보도록 하자. 사진은 서명식 모습(상)과 서명하는 당회장 신성중 목사와 소세광 목사.



총헌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20 ●

일곱째 인

(계 8:1-7)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는 데는 계시록의 구조적 특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7년 대환난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맨 앞에 나오는 일곱 인재앙 가운데 여섯번째까지는 인재앙이고, 일곱번째 인재앙은 일곱 나팔재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곱번째 나팔재앙은 일곱 대접재앙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일곱 인재앙과 일곱 나팔재앙의 관계

일곱 인재앙과 나팔재앙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곱 인재앙이나 일곱 나팔재앙이나 다 같은 것이다. 이것은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묘사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해석방법입니다. 특별히 보수교단 가운데서도 조지 레드나 핸드릭슨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두 재앙의 내용이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둘 다 처음의 네 가지 재앙은 영적인 것과 관련을 가지는 같은 성격의 것이다, 둘 다 여섯번째 재앙 후에는 보충계시가 삽입되어 있다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들어서 반복설, 즉 이 첫번째 해석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번째 해석, 즉 '둘 사이에는 비록 유사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꼭같은 내용은 아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 방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 해석은 테 니라든지 블란차드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다루는 것에도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곱 인재앙보다는 일곱 나팔재앙이 그 심판의 정도가 훨씬 더 격렬하고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둘째로 두 재앙은 그 순서나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셋째로 여섯번째 인재앙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치심을 받지 않고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반해 일곱 나팔재앙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인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인인 666을 받은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2. 일곱 천사가 받은 일곱 나팔의 의미

(1)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암시합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고 했

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셔서 활동을 할 때에 항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나팔의 의미는 첫째로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하는 뜻으로 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모이고, 진행하고, 전쟁을 알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하고, 절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민 10:3-10). 스바나서 1장 15,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팔은 경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하나님께서 행차하시고 임재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도 우리는 나팔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마 24:31).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는 초림 때처럼 조용하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군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구름타고 오실텐데 그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살전 4:16). 그런데 그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소리는 살아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힘을 가진 나팔입니다.

3. 나팔재앙의 준비

(1)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함

일곱째 인을 떼실 때는 곧 일곱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그 전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시 동안'은 요즘말로 30분을 뜻하지만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의 30분이라기보다는 짧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참고해보면 잠시동안 하늘이 고요했다는 말씀은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던 번개와 음성과 뇌성소리가 딱 그쳤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견해는 몇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것이 격렬하고 광범위한 재앙을 가져다주는 진노의 나팔을 불기 전에 있을 긴장감과 경외심을 뜻하는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재앙이 임하기 전에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하게 있는 이 정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곧 이러한 아주 큰 심판들이 일어날 것이니 사전에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할 때, 바로 이때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는 기도해야 할 시간이고, 우리가 의의 세마포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2) 제단 곁에 선 다른 천사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코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는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제단 곁에 서서 섬기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다른 천사는 금향로를 가지고 그 안에 많은 향과 우리의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보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다른 천사는 바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많은 향이 들어 있는 금향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금단에 드리기 위해서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공기만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의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금향로에 담겨서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속에 이런 신전의식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응답이 안되거나 분실되는 일이 없습니다. 본문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가다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구체적인 표시입니다.

(3) 첫째 천사의 나팔

본문 7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석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더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일곱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여기 사위다는 말은 불에 타버린다는 말인데 첫번째 나팔재앙은 피석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수목이라는 말은 특별히 높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말

하는데 여기서는 악한 권력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악한 권력자들의 1/3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종 푸른 풀, 이것은 낮은 일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피석인 우박과 불을 우리의 이성과 논리적으로 볼 때에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우박이 있으면 불이 꺼져버릴 것이고, 불이 있으면 우박이 녹아버릴 텐데 어떻게 이것이 함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의 피석인 우박과 불은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방사성 낙진, 혹은 전쟁 때 포탄, 미사일, 원자탄 같은 것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것을 여기서는 피석인 우박과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필이면 피석인 우박과 불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땅이 죄인들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포탄이나 미사일이 떨어져서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이, 다시 말해서 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6. 25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즉 1/3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판에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분의 이,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은 그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도록 숨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나팔소리는 그냥 나팔소리가 아니라 경고의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임을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으니 기회를 주신 바로 이때에 그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활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충만함을 받고, 순간마다 우리의 언행심사를 돌이켜보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중보자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현황

인도네시아 / 서만수



- 가족사항 / 정영옥 사모
- 파송일 / 1971. 9. 9
- 주소 / P.O.Box 2355 JKT 10001 Indonesia
- 전화 / 62-21-5300037(Fax 548-1313)
- 기도후원 부서 / 영아부 · 유아부 · 중등2부
- 기도제목 : 1. 개척된 67개 원주민 교회의 부흥을 위해, 특히 수마트라, 리아우도 섬의 현지인 개척교회의 성장과 의료선교사 지원과전을 위해 2. 한국 선교사의 추가 파송을 위해 3. 기독교 대학교의 설립과 원만한 운영 4. 인도네시아 신학교 건립을 위해 5. 가족의 건강과 성령충만을 위해

이집트 / 김영대



- 가족사항 / 박영애 사모, 은비, 영화
- 파송일 / 1994. 11. 6
- 주소 / Flat 34, 25 Rd 85 Maadi Cairo Egypt
- 전화 / 202-350-7526
- 기도후원 부서 / 장년3부 · 영어예배부
- 기도제목 : 1. 난해한 아랍어 공부에 지체 주서기를 2. 현지적응, 문화훈련, 가족의 건강을 위해 3. 주어진 사명 따라 현지에서 가장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일 / 육호기



- 가족사항 / 혜진, 종승
- 파송일 / 1976. 12. 20
- 주소 / Leuchte 96 60388 Frankfurt Germany
- 전화 / 49-6109-36850-36695(F)
- 기도후원 부서 / 초등1부 · 고등부
- 기도제목 : 1. 반입되는 성경책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2. 독일의 국내안정과 교포사회 전도사역을 위하여 3. 가족 특히 아들 종승군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4. 한인교회(프랑크푸르트 교회와 비스바덴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일본 / 유병세



- 가족사항 / 이윤호 사모
- 파송일 / 1976. 4. 3
- 주소 / 068-12 日本 北海道 空知郡 北村字赤川 586-63 北村温泉 Nursing Home 舍宅
- 전화 / 81-126-56-2328
- 기도후원 부서 / 유치부 · 중등3부
- 기도제목 : 1. 우상타파와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2. 의료전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3. 연호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4. 중 · 고등부와 주부 성경공부반의 활성화를 위해

이집트 / 이준교



- 가족사항 / 김수련 사모 석선, 석현
- 파송일 / 1979. 10. 30
- 주소 / Maadi P.O.Box 334 Cairo Egypt
- 전화 / 202-350-4620(T&Fax)
- 기도후원 부서 / 초등2부 · 대학부
- 기도제목 : 1. 카이로 한인교회, 지교회와 개척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2. 이집트 내 수단인 선교사역의 구체화를 위하여 3. 애굽 복음주의신학교 사역과 중합신교관 건립을 위해

뉴질랜드 / 김형선



- 가족사항 / 한영자 사모, 회정, 남희, 현주, 우성
- 파송일 / 1993. 1. 10
- 주소 / 132 Sunset Roa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전화 / 649-444-2682
- 기도후원 부서 / 초등6부 · 장년1부
- 기도제목 : 1. 은사선교를 통한 외향선교 및 교포선교를 위해 2. 어린이들에게 줄 책 마련을 위해 3. 현지적응이 빨리 되도록 4. 언어훈련(영어)의 진보를 통해 전도의 문이 넓어지도록

이스라엘 / 김주경



- 가족사항 / 양천근 사모, 한희
- 파송일 / 1984. 6. 27
- 주소 / P.O.Box 23852 Jerusalem 91237 Israel
- 전화 / 972-826-2177, 826-2153(Fax)
- 기도후원 부서 / 초등3부 · 청년1부
- 기도제목 : 1. 현지인 복음화 양성을 위하여 2. 다른나라 유대인 선교기관과 유대 강화를 위해 3. 이스라엘 방편과 선교 프로그램을 위해 4. 선교기지 구축과 성지연구소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호주 / 이기생



- 가족사항 / 박정아 사모, 은송, 진태, 진영
- 파송일 / 1993. 1. 10
- 주소 / 8A Beechworth Rd Pymble Sydney N.S.W Australia 2073
- 전화 / 612-44-4460
- 기도후원 부서 / 중등1부 · 장년2부
- 기도제목 : 1. 2년 과정의 언어학교(영어)를 잘 마친 후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2. 현지 적응과 한인교회 협력사역을

수리남 / 안석렬



- 가족사항 / 이성옥 사모, 소영, 위영, 요한
- 파송일 / 1987. 2. 22
- 주소 / P.O.Box 8222 Paramaribo, Suriname(South. A)
- 전화 / 597-45-2816(T&Fax)
- 기도후원 부서 / 초등4부 · 청년2부
- 기도제목 : 1. 개척된 제2기 사역을 위해 특히 화관어와 영어, 타카타카어 언어훈련을 위해 2.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3. 수리남 사회의 안정을 위해

일본 / 김철영



- 파송일 / 1993. 7. 11
- 주소 / 日本國 大阪市 生野區 中川西 1丁目 22-15
- 전화 / 81-6-741-1189
- 기도후원 부서 / 소망부 · 사랑부
- 기도제목 : 1. 오사카 영광교회와 협력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2. 현지 적응과 정착과 사업을 통해 복음전파를 할 수 있도록

중국 / 김은태



- 가족사항 / 서원숙 사모, 이삭, 성약
- 파송일 / 1991. 6. 16
- 주소 / 2F, 8, 26th Lane Posheung tsuen Shueng-Shui, N T Hong Kong
- 전화 / 852-668-8342
- 기도후원 부서 / 초등5부 · 예배다부 · 예신부
- 기도제목 : 1. 중국대륙 선교준비와 광중 심원 형제들의 계속적인 성령을 위해 2. 언어훈련 및 중국인 전도의 구체적 진행을 위해 3. 자녀교육 및 건강을 위해

케냐 / 고은빈



- 가족사항 / 고병욱 장로, 신영순 권사
- 파송일 / 1993. 7. 11
- 주소 / P.O.Box 49803 Nairobi Kenya
- 전화 / 254-2-71-3707, 74-0328
- 기도후원 부서 / 재가정부 · 재가주부
- 기도제목 : 1. 팀선교 멤버들과 함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 2. 언어훈련의 진보와 건강과 맞사이바족 선교활동을 위해

토·막·소·식

- ◆ 새로이 시작한 유아부 예배는 1부가 오전 8시 50분, 2부는 10시 50분에 모인다. 3~4세의 어린이들이 모이고 있다.
- ◆ 유치부는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1부 꽃 15명, 열매 25명, 2부 꽃 15명, 열매 25명을 모집하는데 모집일자는 1월 29일(주일)이며 주침으로 뽑는다.
- ◆ 초등2부는 새로 올라온 학생과악을 위해 1월과 2월을 학생심방의 달로 정하고 온 교사가 심방에 열심이다.
- ◆ 초등3부는 오후 예배를 11시 30분에 교육관 308호에서 드린다.
- ◆ 초등4부는 학년초에 학생과악을 위해 학생심방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일 오후 예배를 11시 50분에 교육관 409호에서 드린다.
- ◆ 초등5부는 새롭게 학년을 시작하면서 각 반의 반장과 부반장을 뽑았다. 오후예배를 11시 30분에 교육관 509호에서 드린다.
- ◆ 초등6부는 면려회를 구성하여 1월 22일(주일)에 학생회장 및 임원선출을 실시한다. 또한 전 학생이 설교를 받아 적도록 선생님이 지도하고 있다.
- ◆ 중등1부는 임원, 기자단, 싱어롱, 헌금위원을 뽑고 있다.
- ◆ 중등2부는 금년도 전도활동을 위해 태신자카드를 작성하여 수거하고 있다.
- ◆ 중등3부는 영어성경공부 및 성경반원을 모집하고 있다. 영어성경공부는 오후 1시, 교육관 512호실이다. 또 1월 한 달동안을 반별친교의 달로 정하여 교사와 학생이 친해지는 시간으로 정했다.
- ◆ 고등부는 새해를 맞으며 각 소그룹원을 모집하고 있다. 소그룹에는 예루살렘 신입부, 땅끝까지 선교부, 야드니엘, 마라나타 성경부, 바울 전도부, 편집부, 영어성경부, 예본찬양대, 주니어 오케스트라 등이 있다.

라 등이 있다.

- ◆ 대학부에서는 95년도에 대학부의 전통적인 회지인 중현대학을 만들 계획을 하며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 ◆ 청년1부는 1월 20~21일, 교회당에서 임원, 조장, 신입부 리더 수련회를 가졌다. 새해부터 정광욱 목사의 빌립보서 강해가 계속되고 있다.
- ◆ 장년1부는 매주 지도 이한수 목사의 고린도전서 강해가 계속되고 있다.
- ◆ 장년2부는 매주 지도 윤영탁 목사의 욥기 강해가 계속되고 있다.
- ◆ 에바다부에서는 오늘 1월 29일 일본 사가현 농아 청년부 임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11시 수화 통역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 에바다부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가질 예정이다.
- ◆ 도서·장학회에서는 1995년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월 5일까지, 교육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선발대상은 우리 교회 등록교인으로 중·고등, 대학, 청년부에 재적한 학생 및 신학원생(교회가 인정하는 신학원)이다.
- ◆ 선교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선교연구원생을 모집하고 있다.
 - 훈련기간 : 제5기 과정(1995년 1월 첫주 ~ 1995년 12월 마지막 주)
 - 자격 : 해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전문인선교사(tentmakers)로 사역하기 원하거나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대학부 이상의 중현교회 세례교인.
 - 교육시간 및 장소 : 매 주일 14:30-16:40, 연중무휴, 장소는 베다니홀.
 - 강사진 : 국내 저명 선교학교수, 현장 선교사역자
 - 특전 : 1년 이상 수료한 성도는 본인의 청원서 심의 후 본 교회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받고 각종 선교자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모집기간 : 1995. 1. 29(주일)까지
 - 등록비 : 1년(52주) 20,000원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1.26(목) 임시 노회
 - 신성중 목사님 : 1.23(월) 에스라운동본부 발기인 대회 설교, 26(목) 임시노회, CBS 방송선교 기도 후원회 모임
2. 중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받게 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시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김립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입시생들을 축복해주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과 건강을 축복하시고 '일본 대지진'을 보며 더욱 경성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전화로 신성중 목사의 설교를, 교회안내도 함께

'이 시대의 좋은 소리'에서는 전화로 메시지 및 교회안내

700-4403

개하고 싶을 때
또 전도대상자에게 메시지를 들려

등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당회장 신성중 목사의 설교도 '이 시대의 좋은 소리'의 전화이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이 전화 서비스는 메시지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과 성서낭송, 신앙간증과 신앙예화, 교회소식 등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

주고 싶을 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싶을 때 활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전화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00-4403 중현의 소리
- 700-4633 간증
- 700-4733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전화
- 700-4833 행복한 여성의 전화

쓰레기 종량제에 모두 협조를

각층마다 분리수거를 위한 준비 마쳐
가정의 일과 같이 여기며 협조하기를

지난해 말부터 이야기된 '쓰레기' 문제가 금년벽두부터 뉴스의 초점에 되었다. 소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과 함께 시간이 가면서 긍정적인 면으로 정착되어가는 느낌이 든다.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주부들이 쓰레기 수



거용 규격봉투를 싸야하기에 쓰레기 문제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아 현저하게 쓰레기가 주는 반면 공공장소 및 시설들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이에따라 우리 교회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매 주일 후 월요일에 수거해가는 쓰레기

가 트럭 한대 분량이다. 그런데 종량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면 이는 문제가 심각하다. 가정에서와 같은 인식을 갖고 다소 귀찮더라도 분리수거에 노력한다면 교회에서도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는 각 건물 각 층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하여 준비를 해 놓고 있다. 모두가 절서의식을 가지고 동참하여야 하겠다. 플라스틱과 캔류, 종이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수집하는 통과 그렇지 않은 통을 구분하여 놓았으니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 교회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에서도 모범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일·은·고·칩·시·다

이제는 우리, 인사를 하자

어느 주일날 한 자매가 선교관 로비를 지나가다가 같은 부서에 속해있던 자매와 마주쳤다. 그 자매와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했던 적이 없었지만 낯익은 얼굴이라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인사를 받은 자매는 미안해 하면서 외아한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를 아세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착스럽게.....'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어느 목사님이 같이 연구하던 학회의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 참석차 미국에 다녀오신 일이 있다. 그곳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몇몇 분들이 버스를 타고 시내구경을 나섰는데 버스 안에서 한 소녀가 다가와 한국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더니 너무 반가워하며 자기 자신은 OO교회 목사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부득불 목사님들을 모시고 자기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한 소녀는 "아빠! 세상에 고국에서 수십명의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먼 이곳까지 오셨는데 아빠가 안내도 하고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아빠는 목사님들이 오신 것도 모르셨단 말이예요?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늘 교육하시면서 정말 너무해요 아빠" 하면서 불멘소리로 불만을 터뜨리더라. 그 소녀 덕분에 그 목사님들은 '낯선 미국 땅에서 정말 맛있는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훈훈한 동족애의 정을 느끼셨다고 한다.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두 자매는 모르는 사이일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 더욱이 우리는 중현의 한 양우리 속에 같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아주 친하고 긴밀한 사이이다.

주보를 보니 어느 교회학교의 새해 표어가 '할렐루야 안녕하세요'였다. 이제는 우리, 인사를 하자. 서로 대화를 나누자. 특별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탁자에 같은 국수 그릇을 놓고 마주앉아서조차 서로 서먹하고 어색하게 눈을 아래로 깔고 침묵을 지키는 일을 어느 때까지 하겠는가? 중현팬들이여! 지금껏 몰랐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자기 소개를 해보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때부터 서로를 알아가자.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처음 뵙겠습니다!"